‘생성형 AI’ 서비스 경쟁

큐:, 국내 생활정보 ‘한 큐에’… 바드, 구글 기반 자료수집

네이버, 구글 등 생성형 AI 선봬
각사 서비스 연계… 장단점 뚜렷
오답 해소 등 고도화 지속 필요

생성 AI(인공지능)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구글과 네이버는 한층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연달아 선보였다.

구글은 지난 19일 구글맵, 유튜 등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시간 검색 결과를 연동해 개선한 AI 챗봇 ‘바드(Bard)’를 내놓았다. 네이버는 지난 20일 쇼핑·페이 등 자사 서비스와 연계한 검색 서비스 ‘Cue:(큐:)’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바드는 전체 자료수집에는 능통했지만 국내 관련 검색은 부정확했다. 네이버는 자료수집의 정확도는 떨어진 반면, 국내 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정확히 제공했다.

네이버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Cue:(큐:)’ 사용 승인 화면. /네이버

이처럼 두 서비스 모두 부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때가 많아 서비스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큐:, 한국 특화 vs 바드, 글로벌 검색

먼저 구글 ‘바드’는 전세계 기반의 자료수집과 정보 제공에 능통했고 네이버 ‘큐:’는 국내 관련된 질문에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바드와 큐:에 영문과 한국어로 “12월 중 14박 15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하고 싶어. 가장 저렴한 비행기 표를 찾아줘”라고 질문했다.

바드는 “가장 저렴한 인천국제공항-바르셀로나엘프라트공항 왕복 항공권은 43만 3000원으로 20일에 출발해서 31일에 돌아오는 비행기입니다. 항공은 터키항공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한국어 질문에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를 제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을 네이버 큐:에도 했다. 하지만 영문과 한국어 질문 모두에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등 정확한 금액도 제시하지 못했다.

큐:는 “12월 중 14박 15일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하실 예정이라면, 항공권 가격은 약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반면 네이버 ‘큐:’는 쇼핑과 장소 등 국내 생활에 밀접한 질문에는 곧잘 대답했다.

큐:에 “한국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노키존 브런치 카페를 추천해줘”라고 물었을 때 카페 몇 군데를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정확한 위치와 후기, 예약 가능 여부 등도 함께 알려줬다.

반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바드는 노키존의 추천메뉴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등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의 노키즈존 카페를 추천해달라고 질문하자, 고도화된 답변을 내놓았다. 카페 몇 군데를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추천 메뉴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 위치, 그리고 주의 사항까지 안내하며 한눈에 보기에 잘 정리된 답변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바드’는 전세계 1위 검색엔진 구글을 기반으로 전체 자료수집에 능통하다. 확장 기능을 통해 지메일, 구글독스, 구글맵,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해 답하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의 큐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지역 기반 정보 등 실생활 검색에 유용하다. 쇼핑, 페이, 플레이스 등 기존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서비스 모두 부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때가 많아 서비스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구글과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AI 서비스의 답변 정확도를 높인 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車 안에서 투석 치료”…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굴

2023 아이디어 페스티벌

‘세상을 바꾸는 마음 따뜻한 기술’ 주제
‘H-sense·의좋은 오누이’ 대상 영예

‘드라이브스루에서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면.’ ‘공유 전동킥보드를 휠체어에 결합해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 전기차 안에서 편리하게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현대자동차·기아 임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들이 대거 공개됐다.

현대차·기아는 22일 남양기술연구소(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서 임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물을 직접 제작해 발표하는 ‘2023 아이디어 페스티벌’ 본선 경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2일 남양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된 ‘2023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시나리오 부문 대상(의좋은 오누이) 이동경, 김희철, 문선회 책임연구원(왼쪽부터), CTO 김용화 사장, 제작 부문 대상(H-sense) 김혜리, 박재희 연구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창의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연구개발 열정과 창의력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행사다. 올해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세상을 바꾸는 마음 따뜻한 기술’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난 5월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5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돼 이날 본선에서 경합을 펼쳤다.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제작 부문’에 총 9개 팀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안하는 ‘시나리오 부문’에 6개 팀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그 결과 제작 부문에서는 ‘햅틱 네비게이터’를 발표한 ‘H-sense’팀이, 시나리오 부문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활용한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성 향상 기술’을 발표한 ‘의좋은 오누이’팀이 각각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김용화 현대차·기아 CTO 사장은 “이번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모빌리티가 어떤 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 심도있게 고민한 임직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창의적인 연구개발문화 조성을 위해 이러한 도전의 장을 지속해서 운영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 건설기계 3社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HD현대 건설기계 3사가 명절 전 협력사에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지속적인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자재 대금 1327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사의 원자재, 부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690여 개사다. HD현대 건설기계 3사는 명절 전에 집중되는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자재대금을 정기지급일보다 각각 2주가량 앞당겨 9월 27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양성운 기자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주항공 대표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항공안전체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

‘항공안전교실’ 교육기부

제주항공이 객실승무원 교육기부 사업을 지속하며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제주항공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제15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 참여해 ‘항공안전체험교실’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항공 객실승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부스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좌석벨트 및 산소마스크 착용방법 ▲구명복 사용법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D, 17인치 폴더블 노트북용 OLED 양산

QHD 해상도… 주름현상 최소화

LG디스플레이가 더 큰 폴더블 노트북 패널을 양산하며 IT용 OLED 시장 경쟁력을 확대한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17인치 폴더블 노트북용 OLED 패널 양산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패널은 인폴딩 구조로 4대3 화면비에 QHD해상도를 갖췄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적용해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유기 발광층을 2개 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개발한 탠덤 OLED를 적용해 수명과 휘도를 높였다. IT 제품에서는 최적의 기술로 꼽힌다.

OLED 소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등 화면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IT 제품에 최적의 기술로 꼽힌다.

기존 폴더블 패널과 달리 특수 소재를 적용해 접히는 부분의 주름(Crease) 현상을 최소화해 패널을 펼쳤을 때 더욱 매끄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다.

화면을 안으로 접는 ‘인 폴딩(in-Folding)’ 구조로 접히는 부분의 곡률을 3R(반지름 3㎜의 원의 휜 정도)까지 낮춰 반으로 접었을 때 화면 위 아래가 밀착한 듯한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한다.

/김재웅 기자 juk@

완성차업계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 무상 지원

국내 완성차 업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귀성·귀경 장거리 주행이 많은 추석 연휴기간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25일 오전부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는 1264개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에서 기아는 18개 직영서비스센터와 767개 서비스 협력사(오토큐)에서 실시하며, 공식 모바일 앱에서 쿠폰을 다운로드(소진 시까지)해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 KG모빌리티는 2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42개 협력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무상점검 기간 동안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휴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현장에서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작사별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한다. /양성운 기자